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6호 [주간 제2610호]

주체 109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음력 7월 18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 국제사회계가 터치는 흠모의 목소리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찬란과 존경은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도 반영되어있다.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 책임자는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력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시었으며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그리고 가중되는 위협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시였다.

자재의 발전잠재력을 우선시할때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경제토대를 굳건히 다지시였다.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체스코프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세계 근로인민들이 넘겨주는 강력한 사회주의사회건설과 주체혁명위업실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되였다.

김정은동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승리로 이끌고서 혁명투쟁과 건설의 자랑스런 승리를 펼쳐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에집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김정은령도자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로선과 반제사회주의의 기치높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사수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속에서도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경제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광범한 세계인론들도 수고

한 애국애민의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김정은위원장의 의지와 정치실력》, 《인민을 사랑하는 령도자》, 《세계가 칭송하는 최고령도자》, 《한없이 다정다감한 령도자》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였다.

로세아의 인터넷포럼지 《쁘띠리오의 모스크바》는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정치무대에 등장하신 첫 시기부터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신 지도자로 찬양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과학과 기술, 경제발전방향과 추세, 문학예술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계신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의 천품이다.

세계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를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칭송하고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실력은 조선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결정적담보이라고 하면서 아랍소련형외교사회 인터넷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 위원은 조선에서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겠는가,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완벽하게 들고계시는 실력가형의 령도자이다.

그이의 령도실력은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혁명을 끊임없는 상승으로 이끄시는 빛나는 예지이고 천만대중을 하나로 움직여 만년을 극복해나가는 원숙한 조직동원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힘으로 기적을 안아오시는 비상한 창조력이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여 나라의 전략적지위를 급부상시키는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성취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가 창조되도록 하시였으며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심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지니신 뛰어난 령도실력에 대한 끝없는 애독이고 절대적인 믿음이다.

에집트의 인터넷신문 《이벤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려치시는 애민정치가 국제사회를 감동시키고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의 기본요구로 확립하시였다.

또한 나라의 억만재부도 인민을 위해서만 가치를 가

진다고 보시며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것 그자체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도덕도 인민을 위하고 인민적인것만이 장려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숭고한 사명감을 조선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중국국제경제TV》신문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승리들을 안아오시어 전 세계앞에 뛰어난 예지와 정치실력, 고매한 위인적품모를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강철같은 신념, 완강한 실천력으로 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그이를 모시어 조선의 앞날은 보다 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것이다.

쿠웨이트신문 《알샤히드》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자력부강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비약적인 성과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정책이 낳은 필수적결이다》,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자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뜻을 가로막지 못한다》, 《조선은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최방의 등대로 되고 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은 국제사회계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있다.

그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할때만이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발

결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압살공세속에서도 공화국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며 자기가 선택한 정의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해

올수 있는것은 정치에서 자

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왔기때문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의사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공화국의 자주정책은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공화국은 경제에서도 자립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로 되고있다.

력사에는 남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전례가 없으며 더우기 다른 나라에 번영을 선사해준 《구세주》도 존재한적 없다.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다.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남의 힘이 아니라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양상으로 이끌어왔다.

남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할 때에도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로 나아갔으며 바로 그 길에서 남들이 몇백년이 걸려야 이룩한 모든것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룩하고 번영의 튼튼한 토대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들어쥐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기때문이다.

공화국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침략적인 외세의 통략물이 될수밖에 없다는것은 인류정치사가 새겨놓은 피로운 교훈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존엄한 시련의 나날이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전쟁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오늘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다.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남의 힘이 아니라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양상으로 이끌어왔다.

남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할 때에도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로 나아갔으며 바로 그 길에서 남들이 몇백년

이 걸려야 이룩한 모든것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룩하고 번영의 튼튼한 토대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본사기자 김 철

## 큰물과 태풍피해복구사업 힘있게 전개

—은파군 대청리피해복구장에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피해복구장에 달려나간 인민군군인들이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安居를 살림집들이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멋들어지게 설계된 데 맞게 군인들은 천부모, 친형제의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공병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담보하고있다.

또한 건설장비와 물건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모래, 혼석, 막돌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며 살림집완공을 위한 철야전투를 벌려가고있다.

인민군인민들의 전투적기질과 투쟁분배에 의해 건설성과는 날마다 확대되고있다.

한편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피해복구에서는 태풍피해를 신속히 가시기 위한 군민협동작전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이번에 들이닥친 태풍8호의 영향으로 대청리의 농경지와 농작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인민무력성 현장지휘부에서는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선수차를 바로 정하고 최단기간내에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피해를 가시게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인민군인민들이 침수된 포전들에 남면저 달려나가 물빼기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농작물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정성을 다하고있다.

대청리농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배수양수설비들을 집중배치하여 침수매몰된 농경지들을 환원복구하고 농업연구원과 도농촌경리위원회와의 긴밀한 령도밑에 살군제를 버리고가다 뿌려주어 병해충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우고있다.

또한 성장축진제와 후미산 복합비료 등을 분무해주어 벼와 강냉이의 생육상태를 개선해가고있다.

본사기자



## 청년절경축 야외공연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진행



청년절경축 야외공연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이 8월 28일 평양의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청년들의 혁명적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커다란 긍지와 기쁨을 안고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불야성을 이룬 공연장으로 모여왔다.

청년중앙예술선대와 중앙과 지방예술단체의 예술인들, 시안의 예술교육부 교원, 학생들이 다채로운 공연종목들로 청년절의 밤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화려하게 단장된 무대에 노래와 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청춘송가》가 울렸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청년중시정치, 청년사랑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으로 준비해가는 청년들의 끝없는 자긍심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업수행의 맹장부대, 혁명의 계승자로 역세게 키워진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흐르는 녀성독창과 녀성합창 《금방식》은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넘치는 《친근한 우리 원수님》, 《그 품이 제일 좋아》 등의 노래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태양의 촉복속에 끝없이 밝고 창창할 청년강국의 패일을 다시금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로동당시대에 청춘의 자서전을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애국청년들의 드높은 열정과 방랑을 보여주는 이 새로운 종목들이 공연무대에 려이여 울렸다.

특색있는 조명효과로 황홀경을 이룬 무대에 펼쳐진 체육물동과 노래 《청춘과 용



감성》과 경쾌한 하모니카4중주, 청춘가요연곡은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청춘의 기쁨으로 충만된 광장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으로 오늘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합창 《우리는 혁명의 계

승자》, 《가리라 백두산으로》,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가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야외공연이 끝나자 청년학생들의 흥겨운 무도회가 펼쳐졌다.

무도회참가자들은 언제나 청년들을 굳게 믿고 진격의 앞장에 내세워주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끝없는 신뢰심과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척

후대, 익숙부대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나갈 청년전위들의 기개가 혁명적인 노래선물과 함께 무도회장에 차넘치었다.

청년절경축 야외공연과 무도회는 새로운 승리를 향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가려는 청년들의 기상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